

哲學과 知性

-哲學精神의 再建을 爲하야- (一)

金午星

哲學과 知性, 이것은 何等 論題의 價値를 갖지 못한 것인지 모른다. 哲學이 知性的이며, 또 知性을 가져야 할 것은 假令 文學이 知性을 가져야 한다는 것보다는 너무나 自명한 事實인 때문이다. 知性이 論理的 判斷力 같은 것을 이름이며, 哲學이 論理的 判斷을 떠나 생각할 수 없는 것이라면, 哲學과 知性은 어느 意味에서 둘이 아니요 하나라 할 수도 있는 것이니, 哲學이 知性을 要求한다는 것은 다시 論議할 餘地조차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自명한 事實을 論題에 올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면, 그것은 우리들 自身으로 보나 또는 現代의 哲學 自體로 보나 한 개의 悲劇이요, 困辱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그러치만 이러한 悲劇 □□□이 또한 우리들에 對한 한 □□代的, 歷史的 負擔이라 □우리는 그것을 避할 길이 없고 그것을 달게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일 것이다. 오직 우리는 그것이 悲劇과 困辱에 그치지 안코 우리들의 새로운 世代의 再建을 위한 試鍊이요 基礎工事가 되어 지도록 勞力할 따름일 것이다.

哲學이 知性的임에 不拘하고, 現代人이 哲學에 向하야 知性的이기를 要求하게됨은 現代의 哲學이 이 自明의 原理를 버린 까닭일 것이다. 그러타! 現代의 哲學은 自己네의 特性인 知性을 拋棄함은 그 自身의 本性을 拋棄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므로 現代의 哲學은 차츰 論理的 批判을 버리고 信仰과 獨斷에로 옮겨가고 있다. 보라! 나치스의 哲學的 指導者인 로젠베르크[로젠베르크] 같은 사람은 나치스의 哲學的 世界觀을 『二十世紀의 神話』라고 하지 안 헛는가! 그들은 論理的 判斷의 代身에 피(血統)와 흙(土地)에 對한 神話的인 信仰과 地方的인 情熱을 내세운다.

이리하야 神話와 傳統과 本能이 知性을 完全히 驅逐하고 哲學은 다시 中世紀的으로 後退하야 宗教의 奴僕으로서 自足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中世紀에 있어의 哲學을 奴僕삼은 宗教는 그래도 普遍性을 가진 것이었다. 中世

紀의 基督教이 가톨릭(普遍性)을 主張하고 잇었음을 보았어도 알 수 잇는 일이다. 基督教은 어디까지나 世界主義, 人類主義에 立脚해 잇었다. 그러므로 中世紀의 “神學의 奴僕으로서의 哲學”은 그래도 哲學 本來의 精神인 普遍性은 維持했던 것이다.

그러나 現代에 잇어 哲學을 奴僕化시키고 잇는 宗教는 基督教과 같은 世界主義, 人類主義的인 宗教가 아니다. 그와는 正反對로 世界나 人類와는 스스로 답을 싸흐려는 地方的, 民族的인 神話와 傳統과 種族本能을 基礎로 한 粗雜한 種族的인 信仰이다. 이러한 信仰 가운데는 아무런 一般性, 普遍性도 없다. 오직 特殊權益이 잇을 뿐이고 本能的 衝動이 支配될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信仰의 傳僕으로서 自足하려는 現代의 哲學(現代哲學이 모두 그러타는 말은 아니다)이 一般性, 普遍性을 가질 수 없음은 勿論이다.

이리하여 그들은 普遍性的인 代身 特殊性, 個性을 主張하게 된다. 世界性, 人類性的인 代身 地方性, 民族性을 前面에 내세운다. 論理的 判斷을 버리고 非論理的 禮讚하기에 일어난다. 여기서 現代의 哲學은 知性을 버리고 非知性的인 非合理主義에로 나아가게 되었다. 哲學의 世界性, 人類性이 無視되고 地方的 民族的인 이데가 主張된다.

哲學의 本來의 精神은 普遍的인 眞理의 探求에 잇는 것이다. 그러나 哲學은 普遍的인 것을 探求하므로 特殊的, 個性的인 것을 拒否하지는 않는다. 特殊的, 個性的인 것이 없이 普遍的인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特殊的, 個性的인 것은 具象的인 現實이다.

現實은 항상 特殊性, 個性에 依하여 自己를 示顯하고 있다. 그러므로 特殊性, 個性을 拒否하는 것은 現實을 拒否하는 것이며, 現實을 拒否한 普遍性은 한 개의 概念遊戲에 不過할 것이다. 그러나 哲學은 概念遊戲이어서는 안된다. 哲學은 언제나 現實의 哲學이며 現實의 眞理여야 한다.

그러므로 哲學이 探求하는 普遍的인 眞理는 具象的 現實인 特殊的, 個性的인 것의 普遍原理가 아니었어는 안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哲學은 具象的 現實인 特殊的, 個性的인 것을 一般性, 普遍性에까지 昂揚시키는 方法인 것이다. 地方的, 民族的인 것이 今日의 具象的이라면 哲學은 그것을 全혀 拒否해서는 안되며 또 拒否할 수도 없는 것이다. 아니 그것이 具象的 現實이므로 해서 哲學 自體에도 이러한 地方的, 民族的 特性이 나타나고 잇는 것이니, 우리가 獨逸哲學과 英國哲學에서 各異한 民族的 特性을 느끼게 되는 것은 이 까닭이다.